

공공임대주택 320호 건립 본격화 청년 정착·상권 활성화 도모

임실군, 젊은 신혼부부·청년·군무원 등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임실군이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예비 신혼부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군은 임실읍과 관촌면·오수면에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 군무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320호 건립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1년 내 결혼을 앞둔 청년)를 대상으로 관촌면에 120세대(전용 59㎡ 60세대, 전용 84㎡ 60세대), 오수면에 80세대(전용 59㎡)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관촌·오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젊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실읍에는 120세대(전용 59㎡)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육군 35사단과 제6단약창 등 주로 군무원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



임실군이 젊은 신혼부부와 청년(예비 신혼부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진 왼쪽부터 관촌 공공임대주택, 오수 공공임대주택.

이다.

그동안 임실 지역에 근무하는 250여명 달하는 군무원들은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전주 등에서 출·퇴근을 하는 실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합주택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다.

현재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더 특별한 전북형 반합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며, 선정 시 도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반합주택' 공모에 선정되면 입주자들에게 월 임대료 50% 할인과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에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와 군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올해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시행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보장

남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이를 시행한다.

남원시는 앞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75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위로금 및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았었다.

남원시 자전거 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1,000만원(만5세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20~60만원 △6월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으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친환경 녹색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위로금 20~60만원 △6월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남원농기센터,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분양 신청 접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분양을 원하는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어가는 농업기술센터 내수면산업팀을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치어는 농업기술센터 미꾸리 연구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60일 이상 키운 개체 중 0.3g 이상의 건강한 치어를 선별해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마리당 5원으로 남원시 관내에서 미꾸리를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가에만 분양한다.

과거 국내 미꾸리 양식 치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한 국내 미꾸리 치어에 대한 양식 어가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부터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생산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지역 내 미꾸리 양식장에 안정적인 공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25일까지 예비창업 청년 모집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예비창업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명으로,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국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

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해 순창청년문화센터(순창읍 교성2길 25)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650-1562, 1587)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지며,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상반기 내 창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군에서는 청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종자통장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통·기술 잇는 '순창군 명인·명장' 모집

순창군이 전통문화와 숙련된 기술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2025년 순창군 명인·명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발은 지역 내 우수한 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모집은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명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순창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의미하며, '명장'은 숙련된 공예 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계승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부문별로 1명씩이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며 기량이 뛰어난 자로, 순창군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상급 기관(국가·도 지정 무

형문화재 등)에서 이미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지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18일 '군민의 날'에 명인·명장 인증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야의 전통과 기술을 계승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온 명인·명장을 발굴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대에 소중한 유산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장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명인·명장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전기자동차 총 128대로, 승용차 65대, 화물차 63대에 대해 구매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210만원이고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임실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동일 기간 임실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는 2월 17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자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초등 4~6학년 대상 금융 교육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18일 2시에 평생학습관(분관) 강의실에서 초등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서 금융교육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초등학생을 위한 금융 이야기'라는 주제로 현명하게 돈 쓰고, 돈 모으기, 신용의 중요성, 미래 위험 대비하기 등 알찬 내용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건강, 인지/발달, 정서/행동, 부모/가족 4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